



문제는 가스 시장을 찾는 것이다. 브라질은 가스 화력 발전 확장 계획을 포기했으며,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볼리비아는 LNG 수출에 문제가 있다. 안데스산맥을 지나 페루나 칠레의 태평양 연안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LNG를 수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Camisea 가스전에 대한 페루 자체의 LNG 계획 호의는 페루가 볼리비아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칠레와의 역사적인 마찰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복잡하다. 따라서 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 동안 볼리비아는 GTL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가스를 기반으로 한 질소 생산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어 볼리비아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

합작투자 회사인 Petroquimicia Boliviana가 제안한 66,000 t/a 질산암모늄 제조 설비 계획은 120,000 t/a 요소비료 공장에 대한 계획을 통합했다. 프로젝트에는 질산암모늄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함께 3,0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질산암모늄 공장은 직접 활용되거나 NPK 혼합 공장으로 바뀔 것이며, 또한 지역 광산 산업에 산업 등급의 질산암모늄으로 매각될 것이다.

남미지역의 요소 생산 및 소비 현황(1999-2001)						
구 분	생 산(천 성분톤)			소 비(천 성분톤)		
	2001	2000	1999	2001	2000	1999
아르헨티나	430	86	75	360	323	338
브라질	476	566	664	1,257	1,390	1,084
콜롬비아	3	0	2	128	158	167
에콰도르	0	0	0	34	54	32
페루	0	0	0	168	211	203
트리니다드	268	275	276	0	1	0
우루과이	0	0	0	27	12	26
베네주엘라	418	243	332	134	117	95
총 계	1,593	1,171	1,536	2,108	2,266	1,945

o 브라질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 긴축계획 및 재협상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